

문화

연말 훈훈한 문화행사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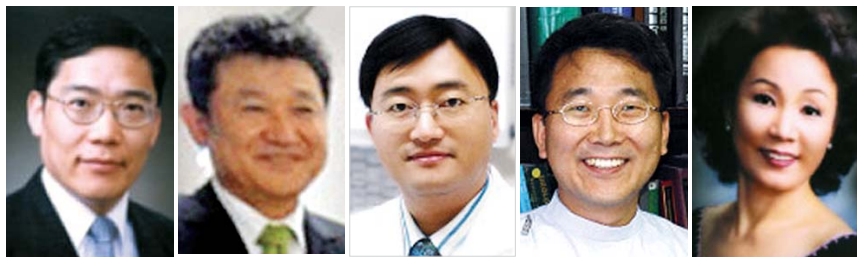
한해를 마무리하며 희망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문화 행사들이 열린다. (사)문화예술진흥회(이사장 윤택림)는 19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희망 나눔 명사 음악회'를 개최한다. 소외 계층 청소년들로 꾸러지는 오케스트라가 이윽할 악기 구입을 위한 음악회다.

출연자들은 음악을 전공한 이들은 아니지만 작은 정성을 함께 나누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윤택림(전남대 교수) 이사장의 시낭송 '우리가 그리는 세상'으로 문을 여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국훈(화순 전남대 병원장), 남종희(전남대병원 기획실장)씨가 아름다운 화음으로 '편지'와 'Perhaps love'를 선사하며 최영준(광주MBC 보도국장)씨는 '사랑이 뭐길래' 등을 들려준다.

현직 의사들로 구성된 밴드 '에스클라'의 무대도 마련됐다. 문응주(문응주 정형외과 원장), 박일성(동아병원장), 송은규(전남대병원장), 박혜은(은혜가정 의학과 원장), 김명선·박근영(전남대병원 정형외과 교수)씨 등으로 구성된 '에스클라'는 '밤안개'와 팝송 'Beautiful Sunday'를 선사한다. 또 가야자 동자 통기타 그룹 '봉고봉고'(김정수·김준호·배명희·김성우·박진국)는 '언덕에 올라' 등을 들려준다.

전문 음악인들의 무대도 마련된다. 이



윤택림 최영준 국훈 남종희 정애련

문화예술진흥회, 소외계층 청소년 악기 구입 명사 자선음악회

정애련 교수 8번째 '사랑나눔 음악회'... 홀리클럽, 나눔 전시회

창훈씨가 지휘봉을 잡은 로고스 유스밴드 오케스트라는 '위모레스크' 등을 들려주며 정애련(전남대 교수)씨는 '베사베 무초'를 선사한다. 또 가수 김원중씨와 정용주씨도 출연한다.

음악회 수익금은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악기 구입에 쓰일 예정이며 오케스트라가 구성되면 악기 지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성악가 정애련(전남대) 교수는 제자들과 함께 '사랑나눔음악회'를 갖는다. 올해로 벌써 8번째를 맞은 행사다.

정교수는 전남대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재학생들과 함께 오는 21일 고통정보산업 학교 대강당(오후 2시)과 나주 계산원 강당(오후 4시) 무대에 선다.

공연 레퍼토리는 노지선·이태진·김벌씨가 들려주는 영화 '여인의 향기' 삽입곡, 남성중창 곡 '우정의 노래', 해금과 피아노 3중주로 들려주는 '크리스마스 캐롤 메들리' 등이다. 또 정교수는 한국가곡 '눈'과 샹송 '고엽'을 선사하며 합창곡으로 'Oh happy day' 'You raise me up'을 들려준다.

광주 지역 기독교 예술인들의 모임인 '광주문화예술인 홀리클럽'(회장 변지유)도 오는 20일까지 우제길 미술관에서 수익금을 불우 청소년과 함께 나누는 전시회를 연다. 황영성·우제길·한희원·오영란·최재봉·변재현·허정씨 등이 작품을 내놓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음악 안에 우리 함께'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여성필하모닉·다문화M오케스트라, 25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장 김유정)는 광주다문화M오케스트라 단원들과 부대끼며 올 한해를 보냈다. 여성필하모닉 단원들은 난생 처음 악기를 접한 80여명의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일일이 개인 교습을 진행했다.

두 오케스트라가 오는 25일 오후 4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음악 안에 우리

함께'라는 주제로 연주회를 마련했다.

임석인 씨가 지휘봉을 잡은 1부는 다문화오케스트라가 장식한다. 연주 레퍼토리는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왈츠 2번',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중 '인생의 회전목마', '크리스마스 캐롤 메들리' 등이다.

2부는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로 꾸며진다. 베히코의 '아프

리칸 심포니'로 문을 열며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이 거리의 제일가는 이발사', '크리스마스 페스티발', '나팔수의 휴일' '백화' 등을 들려준다.

바리톤 김치영, 트럼펫 주자 김정태·노학중·오창훈씨가 협연자로 참여한다. 이번 연주회에는 다문화 가정을 무료로 초대했다.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010-3625-511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미술상에 진시영씨

영상매체 특... "선배들처럼 더욱 활발히 작업하겠다"



광주미술상 운영위원회(위원장 송용)가 수여하는 '제17회 광주미술상' 수상자로 영상매체 작업을 통해 독특한 작품 세계를 선보이고 있는 진시영(사진)씨가 선정됐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수상자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열고, 진씨와 함께 본선에 오른 박선주(관화)·표인부(한국화)씨 등을 대상으로 심사위원 투표를 거쳐 진씨를 수상자로 뽑았다.

진씨에게는 1000만원의 창작 지원금이 주어지고, 본선에 오른 박씨 등에게는 100만원의 지원금이 수여됐다.

진씨는 영상 매체의 기술적 어려움을 바탕

으로 자연에 대한 감수성과 공간에 대한 기억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작업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LED 화면속에서 밀물과 썰물의 흐름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펼쳐지는 하늘과 바다의 풍광을 통해 시간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작품 등을 발표했다.

진씨는 "지역 선배들이 마련한 의미있는 상을 받게 돼 영광이며, 그동안 이 상을 수상했던 훌륭한 작가들처럼 더욱 활발하게 작업하겠다"고 말했다.

조선대 미술대학 회화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후 뉴욕 프랫 대학원에서 영상을 전공한 진씨는 현대미술관 창동스튜디오, 타이페이

아티스트 빌리지 입주 작가로 참여했으며 하정웅 청년작가상을 수상했다.

한편 광주미술상은 지난 1995년 광주·전남에 연고를 둔 원로, 중견 미술인들이 후배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 운영하고 있는 상이다. 송필용·이준석·박종석·주재현·이이남·조성호·나명규·김숙빈·김도기·신창운·임병중·박현수·김진화 씨 등이 수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은암미술관, 22일까지 '건물생심-선물전

"지역작가들의 소품도 있어요"

광주 은암미술관은 오는 22일까지 지역작가들의 소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건물생심-선물전'을 연다.

(사)동아시아미술교류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에는 김형수·허진·한희원·황순철·박태후·김익모·김종일·송필용·서재경·김순희·조광석·윤일권씨 등 50여명의 작품을 선보인다.

김형수 화백은 소를 탄 남자가 한가롭게 피리를 불고, 머리에 음식을 가득 인 여인이 뒤를 따르는 풍경을 담은 '귀로'를 선보이고, 허진씨는 거대한 검은 말의 역동적인 모습을 담은 '유목동물'을



허진 작 '유목동물'

전시한다. 문의 062-231-522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우리 문화유산, 화폭에 고스란히

광주박물관, 내일부터 '문화유적과의 동행'전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은 20일~2012년 1월 24일 지역 미술단체인 광주사생회 회원들이 우리 문화유산을 화폭에 담아 선보이는 '문화유적과의 동행'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조규일·이우진·문명호·김종욱·정성복·장세관·김재근씨 등 광주사생회 회원 50여명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들은 청동기시대 고인돌을 비롯해 천불천탑의 화문 운주사, 순천 선암사의 승선교, 담양 소재원 등을 화폭에 담았다.

한편 광주사생회는 지역 구성작가들이 중심이 돼 지난 1984년에 창립한 뒤 매달 스케치 행사를 통해 유적과 문화재



조규일 작 '청봉산 설경'

를 재해석하는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문의 062-570-705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국악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빛고를 국악전수관

빛고를 국악전수관이 제39기 국악문화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의는 내년 1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민요, 판소리, 가야금, 대금, 가야금병창, 장고, 고법(북), 해금 등 8개 강좌다.

초·중급반으로 15개반이 운영되며 강의는 주1회 2시간 (단, 주2회 수업은 각1시간)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30일까지. 빛고를 국악전수관에서 각 강좌별 20명 내외 선착순 접수한다.

수강료는 5만원(3개월)이다. 빛고를국악전수관 문화학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문의 062-350-45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1일, 시민공감 문화포럼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문화도시협의회(상임대표 김상윤)는 오는 21일 오후 3시 광주 YMCA 백제실에서 시민공감 문화포럼을 갖는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는 문화영역에 시민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공감 문화 지기단' 양성 강좌를 개설했고 행정사무 감사 모니터 활동을 전개했다.

'문화지기단 활동 보고 및 행·의정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이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날 포럼에서는 윤만식(시민공감 문화지기단 공동대표), 윤봉란(광주 YMCA 시민운동팀장)씨가 주제발표를 하고 홍인화(광주시 의원), 봉정선(시민공감 문화지기단 공동대표)씨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문의 062-234-272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
-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번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이태리소파 식탁/좌탁 30%

11월 신상품 포함 2011 최대특별가 판매 (12월18일까지)

골드소파 모방되지 않은 오리지널 20kg골드소파

기능소파 이태리가죽과 독일기능의 최고급소파

골드식탁 국내최저가판매, 밀라노 디자인 특허

앤티크식탁 보조판 연결로 10인용으로 간단사용

홍스페이스 SPACE
☎1899-0240
동구 정동 58-15 창동로터리 홍스페이스 기구빌딩

홍은 수입원/직수입→도매가 판매(전남에 한함)
서랍안이나 가죽이 역한 냄새가 나면 독성있는 중국산입니다.
전국 고급가구의 90% 이상은 중국산입니다.(수입신고서 확인)
이태리가구 전문 빌딩 400평 매장